

## 항공기상정보문, 인공지능이 초안 써 준다

- 항공기상청, (주)엔씨소프트와 항공기상 분야 업무협약 체결

항공기상청(청장 허복행)은 (주)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와 항공기상 분야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위하여 7월 26일(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항공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기상정보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맺어졌다.

협약 체결을 통해 항공기상청은 인공지능 기술 구현을 위한 공항별 관측·예보 자료의 실시간 제공과 인공지능기술 활용 성과 환류를 담당하고, (주)엔씨소프트는 항공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개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항공기상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담당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항공기상청에서 일 2회 제공하는 공항기상정보문에 (주)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항공기상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항공기상청이 공항별 다양한 관측과 예보 자료를 공유하면, 이를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람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정확한 문장으로 재가공하는 방식이다. 항공기상청 예보관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문을 검토·수정해 최종적으로 국내 7개 공항의 항공 관계기관과 항공기상청 누리집에 신속히 통보 및 게시한다.

허복행 항공기상청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 기상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첫 시도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항공기상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항공기상청은 (주)엔씨소프트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관 항공기상 서비스 개발 업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데이터에 접목해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 붙임 협약식 사진

담당 부서	항공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32-222-3020)
		담당자	사무관	이혁제 (032-740-2811)





| 업무 협약식 사진 |